

문법 용어 ‘절’과 ‘구’의 논리적 정합성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

이관규 고려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질'의 개념과 논리적 정합성
- III. '구'의 개념과 논리적 정합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어느 분야든지 그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논리적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국어과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그래야 할 것이고 개별 영역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면 더더욱 그렇다. 특히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을 사전적 정의로 하는 문법(文法) 분야는 말 그대로 '규칙'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내부 영역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¹⁾

학교 문법은 학교에서 교수 학습하는 문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시된 문법이다. 비록 문법 모형에 따라서 문법이 지시하는 의미가 다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학교에서 교수 학습하는 학교 문법의 용어는 그 함의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

1)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합성(整合性)은 무모순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은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담은 함의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말아야 하는 특성을 뜻한다.

법 교과서 안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2002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현행 2014 검정 문법 교과서에서도 그렇다.

이 논문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곤 하는 구와 절이라는 문법 용어가 보이는 논리적 정합성 문제를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II. ‘절’의 개념과 논리적 정합성

1. 안은문장과 절: 안긴절과 안은절

학교 문법 용어 가운데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안긴문장과 절 용어이다. (1ㄱ, ㄴ)에서 보듯이 문장과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단지 절이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문장이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1ㄱ)임에 비해서 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문장과 절 개념

ㄱ. 문장(文章)은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따라서 문장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 예를 들면 ‘주어’와 ‘서술어’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문장이란 결국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148쪽)

ㄴ. 절(節) 역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고,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149쪽)

- ㄷ.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 홀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그것이다. (162쪽)

일견 문장과 절의 의미가 논리적 정합성을 이루는 듯하지만, (1ㄷ)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ㄷ)에서는 안긴문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면서, 안긴문장을 ‘절’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²⁾ 안긴문장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합성을 크게 손상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긴문장’이 아니라 ‘안긴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³⁾

(2) 안긴절과 안은절의 관계

- ㄱ.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길이 [] 질다. (163쪽)
- ㄴ.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 / 이 책은 [] 책이다. (163쪽)
- ㄷ.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지금은 [](에) 이른 시간이다.⁴⁾ (162쪽)
- ㄹ. 선생님은 현지가 모범생임을 아신다. / 선생님은 []을 아신다. (149쪽)
- ㅁ.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 우리는 []고 믿는다. (165쪽)

2) 이러한 입장은 거의 모든 검정《독서와 문법》교과서에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비상교육(이관규·류보라·박경희·박정진·신명선·신호철 외, 2014: 109)의 진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홀문장과 홀문장이 이어지는 방법 가운데 다른 문장의 안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이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3) 사실 ‘안은문장’이 아니라 ‘안긴절’로 명명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관규(2005, 2015), 이선웅·이은섭(2013), 이선웅(2015), 정희창(2014) 등 여러 군데서 이루어져 왔다.

4) (2ㄷ)에서 ‘에’는 수의적이다. 즉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라고 해도 ‘에’ 붙은 문장과 큰 의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2ㄹ)에서의 ‘을’은 생략하기 어려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선생님은 현지가 모범생임 아신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은 혹은 안긴 방식으로 이루어진 안은문장은 안긴절과 안은절이 독립적으로 있는지 혹은 비독립적으로 있는지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에서 밑줄 친 것들이 안긴절이고, 이것을 제외한 부분, 즉 사선(/) 오른 쪽에 있는 것들이 안은절이다. (2ㄱ~ㄷ)의 안은절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절이지만, (2ㄴ~ㄴ)의 안은절은 반드시 뭔가가 와야 한다. (2ㄴ)에서는 ‘알다’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와야 하고 (2ㄱ)에서는 ‘믿다’가 소위 보문동사이기 때문에 소위 보문절이 와야 한다.⁵⁾ 더더구나 (2ㄴ)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안은절이 ‘정아가 []’만으로 이루어진 형국이다. 비록 비독립적이긴 하지만 (2ㄴ~ㄴ)의 안은절들도 절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전체가 겹문장으로서 안은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2ㄱ)의 안은절인 ‘길이 길다’는 사실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절이 아니라 따로 문장이라고 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2ㄴ, ㄷ)의 ‘이 책은 책이다’, ‘지금은 이른 시간이다’도 마찬가지로 절이 아닌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이 (2ㄱ, ㄴ, ㄷ)에서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쓰임새라면 당연히 문장이다. 그러나 겹문장, 그것도 전체 안은문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 (2ㄱ) ‘길이 비가

5) 보문동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정주리(1994)의 ‘국어 보문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6) 영어권의 문법 과목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하는 Irvin, J. L., Odell, L., Vacca, R., Hobbs, R., & Warriner, J. E. (2009: 128-137)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전체 언어 표현이 ‘문장’이고 주술 관계를 지닌 그 안의 언어 표현들은 모두 ‘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겹에 있는 것은 독립절(혹은 주절)이고 속에 있는 것은 종속절(혹은 의존절)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영어권 문법에서는 우리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모두 종속절 속에 포함하고 있다.

A Clause is a word group that contains a verb and its subject and that is used as a

와서 질다'에서, '길이 질다'만 따로 안은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아가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전체가 겹문장으로서 하나의 안은문장이고 각 부분은 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길이 질다'는 '안은절'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전체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⁷⁾

2. 이어진문장과 절: 대등절, 종속절, 주절

학교 문법에서 절과 문장이라는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을 논하면서 꼭 짚어봐야 할 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 들어가 있는 각각 절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한 논의이다. 흔히 각 겹문장들의 선행절 혹은 앞 절을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이라고 부른다.⁸⁾ 그런데 각각의 후행절 혹은 뒤 절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제시

sentence or as part of a sentence.

SENTENCE A sitar is a stringed instrument that resembles a lute.

S V

CLAUSE A sitar is a stringed instrument. [complete thought]

S V

CLAUSE that resembles a lute [incomplete thought]

An independent (or main) clause expresses a complete thought and can stand by itself as a sentence.

A subordinate (or dependent) clause does not express a complete thought and cannot stand by itself as a sentence.

- 7) 절과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선웅(2015: 10)과 유현경(2015: 68)에서는 각각 “절≤문장”, “절≤문장”로 제시하고 있고, 장소원·김혜영(2016: 173)에서는 “절<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 8) 흔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을 대등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이관규, 1999 참조).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인 비상교육(이관규 외, 2014: 112)에서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종속절과 부사절로 구분해 보자.”라는 발문을 사용하면서 종속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3)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교육인적자원부, 2002: 166-167)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지는 홀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은 뒤 절과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나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대조)

(밑줄은 필자)

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 때 앞 절과 뒤 절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원인)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조건)

(3ㄱ, ㄴ)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밑줄 친 부분이 앞 절이고 뒤에 오는 나머지가 뒤 절이라는 것이다. (3ㄱ)의 ‘밤말은 쥐가 듣는다’도 뒤 절, (3ㄴ)의 ‘길이 질다’도 뒤 절이어서, 곧 이어진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주술 관계 표현은 문장이 아니라 절이라는 것이다.⁹⁾ 일반적으로 (3ㄴ)의 앞 절은 흔히 종속절, 뒤 절은 주절이라고 불러 왔

9) 이러한 입장은 천재교육(박영목·천경록·이은경·박의용·이현진, 2014: 103)에서 낸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어진문장에서 절1, 절2를 전제하고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회사(한철우·성낙수·고재현·곽현주·김미희·오유경 외, 2014: 128)의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에서는 ‘봄에는 눈이 녹고 꽃이 핀다.’ 같은 이어진문장을 갖고 여기서 앞 문장, 뒷문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앞 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의미 관계에 있는지 말해 보자.”와

다. 즉 종속절과 주절로 일반화되어 있다.¹⁰⁾

문제는 (37)에서 앞 절과 뒤 절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이다. 흔히 학계에서는 앞 절을 대등절이라고 불려왔다.¹¹⁾ 접속절이니 선행절이니 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선행절은 앞 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접속절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흔히 접속문이라고 부르는 데서 온 용어이다. 그렇지만 접속문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구분하다 보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을 지칭하는 용어로 접속절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뒤 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어를 부여한 적이 거의 없다. 그냥 뒤 절 혹은 후행절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앞 절을 대등절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뒤 절도 대등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대등절 두 개가 이어져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 대등절, 뒤 대등절 이렇게 명명해야 할 판이다. 편의상 ‘대등절’ 하면 앞 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뒤 절에는 ‘뒤 대등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같이 탐구 발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봄에는 눈이 녹고’가 결코 문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0) 미래엔(윤여탁·구본관·정정순·김기훈·장성남·소정섭 외, 2014: 126)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어진문장에서 주(主)가 되는 절을 ‘주절’이라 하고, 주절을 한정하는 절을 ‘종속절’이라 한다.

(예)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

(종속절) (주절)

- 11)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때 이렇게 부르곤 한다(이관규, 1999 참조). 아무런 언급 없이 ‘대등절’ 하면 앞 대등절을 지칭해 온 것이다. 이는 흔히 ‘구개음화’라고 하면, 연구개음화가 아닌 ‘경구개음화’를 지칭하는 것과 동일하다.

3. 절의 개념과 종류

결국 절이라는 문법 용어는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과 유형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절이라 하면 안긴문장을 떠올렸으나, 그것은 ‘안긴절’이라는 용어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문장이 안은문장일 경우 안긴절을 안은 ‘안은절’이 따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이 절의 종류로 설정될 수 있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대등절과 뒤 대등절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절(節)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겹문장 안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절이 안은문장이나 이어진 문장 할 것 없이 존재한다는 것과 절 자체로는 독립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살핀 절의 개념과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 (4)와 같다.

(4) 절의 개념과 종류¹²⁾

ㄱ. 절의 개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는 문법 단위

ㄴ. 절의 종류

안긴절 -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안은절 - 위 5가지를 안은 절

종속절, 주절

대등절(앞, 뒤)

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절(節)을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안긴절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 말하는 절은 이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한편 ‘안은 문장’은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 절을 가진 전체 문장을 가리키는 문법 용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학교 문법 교과서나 마찬가지다.

III. ‘구’의 개념과 논리적 정합성

1. 구의 개념과 종류

II장에서 보듯이 절과 문장은 분명히 구분된다. 단지 안긴문장이라는 용어만 안긴절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몇몇 절을 명명해 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안긴절을 제외한 것을 안은절로 설정하여, 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함으로써 전체 안은문장은 안은절이 안긴절을 안은 형국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구이다. 구(句)는 대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학교 문법에서 알려져 왔다.

(5)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어절과 구 개념

ㄱ. 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중 하나가 어절(語節)이다.

어절은 띄어 쓰는 단위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앞의 말에 붙어서 한 어절을 이룬다. (148쪽)

ㄴ. 그런데 띄어 쓴 어절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문법 단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 문장에서 ‘저 코스모스가’와 ‘아주 아름답다’는 각각 별개의 덩이가 되어 하나의 문법 단위를 이룬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을 구(句)라고 한다. 구는 자체 내에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문장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구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어절

(149쪽)

ㄷ.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¹³⁾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ㄹ. 저 코스모스 아름답다.

(5ㄴ)에서 보듯이 구(句)는 기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절(節)과 구분된다. 또한 구(句)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가 각각 구(句)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고 말한 것이다.¹⁴⁾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구는 흔히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등을 지칭한다.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저 코스모스’가 바로 명사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조사가 붙은 ‘저 코스모스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句)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절(語節)은 분명 아니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결국 주어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句)는 띄어 쓴 둘 이상의 단어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문법 단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띄어 쓴’이라고 말하는 것은 ‘코스모스가’는 비록 ‘코스모스’와 ‘가’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구(句)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5ㄴ)의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구(句)가 된다는 것도 명사구 같은 품사 명칭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구(句)는 띄어 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해

13) 물론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를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다’로 나누는 게 이론적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김의수(2016: 164-177)에서는 철두철미 이런 분석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을 염두에 둔 교수학습성을 염두에 두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14) 구(句)를 단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8)에 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서는 구(句)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종류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역시 구를 단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 정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아름답다’는 서술어구인가 형용사구인가? 이진 단어 혹은 품사 차원의 구로 볼 수도 있고 문장 성분 차원의 구로도 볼 수가 있다. 맥락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5ㄷ)의 ‘저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단어 혹은 품사 차원의 용어로는 명사구가 될 것이며, ‘저 코스모스’는 문장 성분 차원의 용어로 주어구가 될 것이다.

(6) 구의 개념과 종류

ㄱ. 구의 개념: 띄어 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문법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 구성을 이루지 않는다.

ㄴ. 구의 종류

명사구, 대명사구, 수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감탄사구, 조사구)¹⁵⁾

주어구, 목적어구, 보어구, 서술어구, 관형어구, 부사어구, (독립어구)

지금까지 살펴본바, ‘문법’ 국정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을 구(句)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구(句)로 제시된 ‘저 코스모스’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은 맞지만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단어 기능을 하는 ‘저 코스모스’는 명사구이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는 ‘저 코스모스’는 분명히 명사구가 아닌 주어구이기 때문이다.

15) 장소원·김혜영(2016: 185)에서는 구(句)에 대하여 “내부에 주술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 어군”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명사구, 대명사구, 수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를 설정하고 있다. 감탄사구와 조사구는 설정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승용(2011: 175)에서는 구(句)를 통사론적 측면에서 구절구조규칙 XP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만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학교 문법에서 주어구, 목적어구 같은 문장 성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어가 갖고 있는 교착어 성격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어권에서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품사 명칭으로 명사구, 부사구 등을 사용하곤 한다. 국어에서 ‘저 코스모스’와 ‘저 코스모스가’는 모두 문법적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구(句)의 개념에 맞고 종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ㄱ)과 같은 구의 개념과 (6ㄴ)과 같은 구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다.¹⁶⁾

2.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의 구(句) 개념과 종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구(句)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에서 구(句)를 진술하는 차이가 있다.

(7)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에서의 구(句) 개념과 종류

- ㄱ.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예: 나는 [이번 여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학사(한철우 외, 2014: 124)〉

- ㄴ. 문장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문장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저 코스모스가’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아주 아름답다’로 나뉜다. 이처럼 둘 이상의 단어

16) 학교 문법에서는 구(句)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의 종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5ㄴ)의 ‘저 코스모스가’는 주어부, ‘아주 아름답다’는 서술부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다(149쪽). 일정한 문법 단위를 이루는 언어 표현에 대해서 상위의 구(句)를 설정하였으면, 후속 조치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검인정 문법 교과서인 이용주·구인환(1966: 56)에서는 주어구, 서술구, 목적구, 관형구, 부사구라는 명칭을 제시하였으며, 이길록·이철수(1979: 74-75)에서는 명사구, 관형구, 부사구, 서술구, 독립구, 접속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논급은 후고로 미룬다.

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구(句)라고 한다.

〈지학사(이삼형·김중신·김창원·정재찬·이성영·최지현 외, 2014: 205)〉

ㄷ. 어절이 두 개 이상 결합된 단위.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비상교육(이관규 외, 2014: 102)〉

국정 문법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는 (5ㄴ)에서 보듯이 구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7ㄱ, ㄴ)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이다. 그런데 (7ㄷ)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에서는 두 개 이상 어절이 결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구(句)가 단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즉 어절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충실히 기술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국정 문법 교과서와 (7ㄱ, ㄴ) 검정 교과서에서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하나의 단어 기능을 한다는 비정합성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7ㄷ) 검정 교과서는 두 개 이상 어절로 이루어진다고만 서술하여 ‘저 코스모스’와 ‘그 남자’에 대한 명명하기를 다루지 않은 양상을 띠고 있다. 어절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주어구, 서술어구라는 문장 성분 이름을 사용한 구(句)들을 인정해야 할 테이고 또한 단어 기능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명사구, 형용사구 등 품사 명칭을 사용한 구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정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문법적 표현들은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문법 용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즉 명사구, 주어구 등을 모두 구의 개념과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6)에서처럼 구는 명사구, 대명사구, 수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등 용어와, 주어구, 목적어구, 보어구, 관형어구, 부사어구, 서술어구 등 용어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표준국어대사전》과 영어권의 구에 대한 개념과 종류

국어 교육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권위가 무척 높다. 사실 사전은 약속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는 물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서 교과서와 차이 나는 점이 있을 때 표준국어대사전을 비중 있게 참고하곤 한다. 여기서 2018년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구(句)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앞서(주15) 보았듯이, 장소원·김혜영(2016) 등 이론 문법에서 구(句)에 대하여 단어 차원의 품사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를 영어권 학교 문법 관련 도서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8) 《표준국어대사전》과 영어권의 구에 대한 개념과 종류

ㄱ. 구(句)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종류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8)〉

ㄴ. A Phrase is a group of related words that is used as a single part of speech and that does not contain both a verb and its subject.

VERB PHRASE have been waiting [no subject]

PREPOSITIONAL PHRASE during the storm [no subject or verb]

INFINITIVE PHRASE to run swiftly [no subject or verb]

〈Irvin, et al., 2009: 105〉

ㄷ. Prepositional Phrase, Adjective Phrase, Adverb Phrase, Verbal Phrase, Participial Phrase, Absolute Phrase, Gerund Phrase, Infinitive Phrase, Appositive Phrase

〈Irvin, et al., 2009: 104-1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개 단어 명칭으로 구가 분류되어 있다. (8ㄱ)

의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렇지만 개념 설명에서는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이라 하여 문장 성분 개념을 띠고 있기도 하다. 결국 구(句) 용어가 논리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句)를 많이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 구(句)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ㄴ) 도서는 교사들이 보는 일종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책이다. 여기를 보면 구(句)를 품사처럼 사용되는 단어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영어권에서는 단어들 무리 차원에서 구(句)가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사구, 전치사구 같은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정사구(infinitive phrase)를 설정한 것을 보면 무조건 품사 명칭을 구 용어로 인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관된 기준을 갖고 구(句)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8ㄷ)은 해당 문서에서 제시된 구를 모두 적어 둔 것이다.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처럼 품사 용어를 사용한 것도 있지만, 분사구, 절대구, 동명사구, 부정사구처럼 대부분 그것들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의미로 묶일 수 있는 것을 구(Phrase)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필자가 ‘저 코스모스가’를 주어구로 명명하고, ‘저 코스모스’는 명사구로 인정하는 것은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조사 같은 것이 없으니, 단어들 성격에 따라 구 용어를 사용하는 게 유용했으리라 본다. 고정된 문법 용어에 모든 언어들에 맞춰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개별어에 맞추어서 문법 용어가 설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착어인 국어에서는 품사와 성분 명칭을 사용한 구(句) 용어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서 문법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 문제를 구와 절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리적 정합성이란 말은 사실 논리적 무모순성을 뜻한다. 교육용 학교 문법 용어는 용어 자체 및 사용에서 모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편하게 사용되어 온 안긴문장은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 ‘안긴절’이라 해야 할 것이고 안긴절을 안은 절은 ‘안은절’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즉 안은문장은 안긴절을 안은 겹문장 전체를 가리킬 것이다.¹⁷⁾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나 안긴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이때에 주절이니 혹은 안은절이니 하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 주절에 대해서는 종속절, 안은절에 대해서는 안긴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을 구(句)”라고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논리적 정합성을 깨뜨리고 있다. 국어에서 어절 차원과 단어 차원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 코스모스’는 두 개의 어절이 모인 것이지만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그 코스모스’가 명사구로서 하나의 단어, 즉 명

17) 학교 문법에서, ‘길이 비가 와서 질다.’라는 안은문장은 명명하기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독자적으로 문법 용어 사용할 때는 붙여서 ‘안은문장’이라고 하고 전체 문장을 가리킬 때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해서 띄어 쓰는 실정이다. 아예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라고 모두 붙여 쓰면 모를까 이도저도 아니게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라고 쓸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모두 띄어서 ‘안은 문장, 안은 절, 안긴 절’처럼 사용하는 게 정합성 있는 방식인지 모른다.

사 기능을 한다. 개념 정의 자체에 논리적 정합성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법적 역할을 하는 ‘그 코끼리가’는 주어구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코끼리’만을 명사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10. 27. 투고되었으며, 2018. 11. 19. 심사가 시작되어 2018.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국립국어원(2018),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검색일자 2018. 12. 11., 사이트 주소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의수(2016), 『언어의 다섯 가지 부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목·천경록·이은경·박의용·이현진(2014), 『독서와 문법』, 서울: 천재교육.
- 신승용(2011),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153-178, 국어교육학회.
- 유현경(2015), 「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절의 문제」, 『어문논총』 63, 63-87.
- 윤여탁·구보관·정정순·김기훈·장성남·소정섭·신효은·최혜민·김정은·송소라(2014), 『독서와 문법』, 서울: 미래엔.
- 이관규(1999),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 27, 753-780.
- 이관규(2012), 「학교 문법에서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인가」, 『국어교육학연구』 45, 389-411, 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5, 201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개정판)』, 서울: 역락.
- 이관규·류보라·박경희·박정진·신명선·신효철·하성욱(2014), 『독서와 문법』, 서울: 비상교육.
- 이길록·이철수(1979), 『인문계 고등 학교 문법』, 서울: 삼화 출판사.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정재찬·이성영·최지현·양정호·권순각·조형주(2014), 『독서와 문법』, 서울: 지학사.
- 이선웅(2015),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77-105.
-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249-277, 국어국문학회.
- 이용주·구인환(1966), 『중학교 국어문법』, 파주: 범문사.
- 장소원·김혜영(2016), 「구의 개념 정립과 그 분류」, 『국어학』 80, 173-194.
- 정주리(1994), 「국어 보문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희창(2014),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233-254, 국어학회.
- 한철우·성낙수·고재현·곽현주·김미희·오유경·윤국한·이재형(2014), 『독서와 문법』, 서울: 교학사.
- Irvin, J. L., Odell, L., Vacca, R., Hobbs, R., & Warriner, J. E. (2009), *Elements of language*,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문법 용어 ‘절’과 ‘구’의 논리적 정합성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이관규

이 논문의 목적은 학교 문법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 문제에 대하여 절과 구를 중심으로 살피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안긴문장이라는 용어는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 ‘안긴절’이라 해야 할 것이고 안긴절을 안은 ‘안은절’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안은 문장은 당연히 안긴절을 안은 겹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라는 일상적 표현으로 부를 수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대등절, 뒤 대등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나 안긴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이때에는 종속절과 주절, 안긴절과 안은절이라는 용어가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

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보이는 단위임에 비해서 구는 그런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구(句)는 띄어 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문법적 역할을 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구는 단어 차원이든 문장 성분 차원이든 구애를 받지를 않는다. 명사구, 동사구처럼 단어 차원의 용어도 가능하고 주어구, 서술어구 같은 문장 성분 용어도 가능하다. 그래야만 학교 문법 용어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다.

핵심어 논리적 정합성, 절, 구, 안긴절, 안은절, 대등절, 종속절, 주절, 명사구, 주어구

Logical Consistency of Clauses and Phrases in Grammar Terms

—Focused on School Grammar

Lee Kwankyu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problems in the logical consistency of school grammar terms, focused on clauses and phrases, for desirable solutions. Embedded sentence must be renamed as “embedding clause” because they are not a complete sentence; rather, it is included in the whole sentence. Including the embedding clause to a complex sentence must be called as “including sentence.”

Conjunctive sentences generally have front clause and back clause. As the logic follows, coordinate sentences also have a front coordinate clause and back coordinate clause. However, the front and back clauses are not appropriate terms to describe sentences that are connected within the subordinate or including sentence. Combining the terms, subordinate clause and main clause, and embedding clause and including clause have the logical consistency.

The characteristics of clauses show units such as subject and predicate while those of phrase do not. Phrases are formed by having two or more words and plays a consistent grammatical unit. Therefore, they are not restricted to be used as a component with a group of words such as noun phrase or verb phrase, or as a component of sentences such as descriptive phrases. Such solutions guarantee the logical consistency of school grammar terms.

KEYWORDS Logical Consistency, Clause, Phrase, Embedding Clause, Including Clause, Coordinate Clause, Subordinate Clause, Main Clause, Noun Phrase, Subject Phrase